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이런 언어 개념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 언어 개념은 보편성을 갖는데, 이는 실제 현실의 대상에 비해 언어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징은 현실의 대상은 늘 변화하는 데 반해 언어 개념은 고정적이라는 점이다. 즉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언어 개념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둔 공자와 순자의 사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의 본질과의 관계를 탐구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다.

공자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언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그 명분은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언어가 제대로 사용되어야 사회 질서가 잡히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을 정명 사상이라고 한다. 정명 사상은 순자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순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없으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해당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대상의 이름, 즉 언어 개념이 되는 것이라 보았다. 순자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예를 중시한 사상가인데, 예는 대상 간의 분별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순자는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순자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언어 개념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한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문명 비판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공자, 순자와 같은 유가가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계승하며 유지하려고 한 사상이라면, 노자, 장자와 같은 도가는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다.

인위를 배제한 자연 상태인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노자는 언어 개념을 인위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노자는 모든 것이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현실 세계를 유명(有名)의 세계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런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가짜 이름이라고 여겼다. 이는 언어 개념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상의 본질은 언어 개념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이며, 노자는 이것을 무명(無名) 혹은 무(無)로 표현했다. 노자는 유명한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통해서 무명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무명의 세계가 유명한 세계보다 앞서고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런 노자의 입장은 장자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장자에 의하면 언어 개념은 상대적이며 유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를 할 수 있다.
- ② 공자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 ③ 도가는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다.
- ④ 공자는 사람들이 분명한 언어로 표현된 자신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⑤ 노자는 문명 비판적인 언어 개념을 사용하여 무명의 세계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02. ㉠ 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사람은 얼굴과 특성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모두를 '사람'이라고 칭한다.
- ② '사자'라는 이름에 사용된 문자의 형태는 실제 사자의 외적인 형태와 관련이 없다.
- ③ 실제 하늘이라는 대상은 하나이지만, 언어의 종류에 따라 '하늘', 'sky'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 ④ 하늘의 별을 '별'이라고 이름 지어 사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을 임의로 '빨'이나 '불'로 부를 수 없다.
- ⑤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다'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의미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변화했다.

03. 윗글의 순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말과 소는 사실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짐,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짐 등 같은 짐이 많다. 이처럼 모든 대상은 같은 짐에 주목하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며,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

- ① 언어 개념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있으므로, 말은 소가 될 수 없다.
- ② 대상의 같은 짐에 주목하는 것은 언어 개념의 사용을 통해 귀천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말과 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언어 개념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 ④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약속에 의해 정해진 언어 개념을 어지럽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⑤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 간의 분별을 없애는 것으로, 예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생물학자 윌슨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 동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을 목표로 사회 생물학을 주창하였다. 그는 사회 생물학을 모든 사회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사회를 유전학과 진화론에 기초하여 규명하지 않는다면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인간의 윤리 문제도 생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사회와 윤리 등과 관련된 인간의 의식도 뇌의 시상 하부와 대뇌변연계에 있는 정서 중추에 의해 형성되고 제어되며, 유전자의 특성이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생명체가 지니는 특성은 결국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윌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이 ㉠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데, ㉡ 이러한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제시되기도 한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철학에서 이념적 기초로 제시한 개념인 '현실적 존재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실재이다. 현실적

존재자는 다양한데, 신도, 허공 속에 ㉢ 부유하는 먼지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모두 현실적 존재자이다. 이들은 존재적 중요성이나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는 같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현실적 존재자란 과거를 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 창출하는 과정 속의 실재이다. 그런 점에서 신도 먼지도 세포도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면서, 현실적 존재자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각각의 현실적 존재자들이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인 '공재(togetherness)'와 통일성을 이루는 과정인 '합생(concrescence)'을 거쳐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되며, 이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는 다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생성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때의 일련의 과정은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를 따르는데,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는 ㉤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에게는 주어진 조건, 즉 여건이 되고 또 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나아가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적 존재자는 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고유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자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펄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실적 존재자의 특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생물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주체적으로는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다시 말해, 현실적 존재자는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에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객체적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 존재자 내부에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생물학이 ㉥ 접하는 지점이 된다. 생명체는 유전자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 즉 개체 유전을 통해 객체적 불멸성을 실현한다. 앞선 존재자와 후속하는 존재자로 이어지는 과정은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재와 합생을 거치며 생명체의 존재 목적이 달성된다.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세대를 마감한 후에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목적을 생명 중추라고 칭하였다. 현실적 존재자로서 생명체는 개체 유전을 통해 생명 중추를 달성하고 미래의 존재자에게 결정적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사회 생물학의 유전자 결정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평가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0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윌슨은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하려면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② 윌슨은 하등 생물과 고등 생물에 모두 적용되는 생물학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화이트헤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들도 현실적 존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④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중요 기관인 생명 증추를 통해 개체 유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⑤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후속하는 생명체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05.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명체는 여러 현실적 존재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 ② 생명체는 생명을 본질로 하지만 결국 소멸하는 일시적 존재이다.
- ③ 생명체의 개체 유전은 생명체의 독립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④ 생명체의 현재 속에는 미래의 생명체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
- ⑤ 생명체의 특징은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무작위적 결합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06. 윗글의 '화이트헤드'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라는 현실적 존재자와 B라는 현실적 존재자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W_{AB} 라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형성하였다.

- ① W_{AB} 를 A와 B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A와 B는 W_{AB} 의 여건이자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 ③ W_{AB} 를 이루기 위해 A와 B는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 ④ A와 B는 W_{AB} 내에 있는 현실적 존재자로서 W_{AB} 의 특성을 모두 포괄한다.
- ⑤ W_{AB} 는 A와 B가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합생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하게 된 것이다.

07. <보기>의 (가), (나)를 윗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데카르트는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실체의 존재는 실체가 놓여 있는 여건이나 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명체는 생존에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현상에서 찾는 것으로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이다. 환원주의에서는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체로 설명하는데, 이는 부분의 속성을 전체도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환원주의는 생명체가 유전자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탄생하고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가): 데카르트가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은, 현실 세계를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라고 설명하는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 생명체는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화이트헤드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존재자의 주체적 소멸을 줄이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 환원주의에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현실적 존재자를 '펼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설명하며 현실적 존재자를 동태적 존재로서 인식한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으로 보고 생명체를 이루는 부분의 속성을 생명체가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것은,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를 여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화이트헤드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 환원주의가 생명체의 여러 부분은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도 결국에는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화이트헤드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0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모자란다는
- ② ㉡ : 떠다니는
- ③ ㉢ : 찾아내는
- ④ ㉣ : 뒤잇는
- ⑤ ㉤ : 맞닿는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생리학 분야의 절대적 권위는 2세기 경 그리스 의학을 집대성한 갈레노스에게 있었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정맥피는 간에서 생성되어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영양분을 전달하면서 소모된다. 정맥피 중 일부는 심실벽인 격막의 구멍을 통과하여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이동한 후, 거기에서 공기의 통로인 폐정맥을 통해 폐에서 유입된 공기와 만나 동맥피가 된다. 그 다음에 동맥피는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생기를 전해 주면서 소모된다. 이 이론은 피의 전달 경로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갈레노스의 포괄적인 생리학 체계의 일부로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다. 중세를 거치면서 인체 해부가 가능했지만, 그러한 오류들은 고대의 권위를 추종하는 학문 풍토 때문에 시정되지 않았다.

16세기에 이르러 베살리우스는 해부를 통해 격막에 구멍이 없으며, 폐정맥이 공기가 아닌 피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후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통과한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폐순환이 발견되자 갈레노스의 피의 소모 이론은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당시의 의학자들은 갈레노스의 이론에 얽매어 있었으므로 격막 구멍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문제, 즉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피가 옮겨 갈 수 없는 문제를 폐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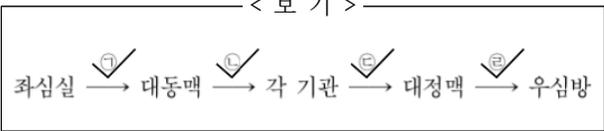
이러한 판도를 바꾼 사람은 하비였다. 그는 생리학에 근대적인 정량적 방법을 도입했다. 그는 심장의 용적을 측정하여 심장이 밀어내는 피의 양을 추정했다. 그 결과,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피의 양은 섭취되는 음식물의 양보다 훨씬 많았다. 먹은 음식물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하비는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하비는 끈으로 자신의 팔을 묶어 동맥과 정맥을 함께 압박하였다. 피의 흐름이 멈추자 피가 통하지 않는 손은 차가워졌다. 동맥을 차단했던 끈을 약간 늦추어 동맥피만 흐르게 해 주자 손은 이내 생기를 회복했고, 잠시 후 여전히 끈에 압박되어 있던 정맥의 말단 쪽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끈을 마저 풀어 주자 부풀어 올랐던 정맥은 이내 가라앉았다. 이로써 동맥으로 나갔던 피가 손을 돌아 정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 실험을 근거로 하비는 1628년에 '좌심실→대동맥→각 기관→대정맥→우심방→우심실→폐동맥→폐→폐정맥→좌심방→좌심실'로 이어지는 피의 순환 경로를 제시했다. 반대자들은 해부를 통해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얼마 후, 말피기가 새로 발견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발견하면서 피의 순환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폐와 그 밖의 기관들을 피가 따로 순환해야 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체 기능을 설명하는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이 시작되었다.

09. 위 글로 보아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
- ② 과학적 발견들과의 부합
- ③ 정량적 사고방식의 채택
- ④ 새로운 관찰 도구의 도입
- ⑤ 실험적 방법의 적극적 활용

10. <보기>는 '하비'가 제시한 피의 순환 경로의 일부이다. '하비'가 끈 실험에서 차단했던 위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1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1. <보기>의 관점에 따라 위 글의 사례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성공적인 과학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 후속하는 과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발견한다. 이러한 '정상 과학' 활동에서 때때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인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패러다임을 당장에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칙 사례가 누적되면서 위기가 도래한다. 이때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을 벌인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새로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데, 이것이 '과학 혁명'이다.

- ① 갈레노스의 이론은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므로 '패러다임'이었겠군.
- ② 갈레노스에 대한 강력한 추종이 있었던 중세의 생리학은 '정상 과학'이었겠군.
- ③ 폐정맥에서 피가 발견된 것은 갈레노스의 이론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변칙 사례'에 속하겠군.
- ④ 폐순환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했겠군.
- ⑤ 하비의 순환 이론이 갈레노스의 이론을 대신하여 수용된 것이 '과학 혁명'이겠군.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쾌락주의는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게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

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쾌락주의는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만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한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

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쾌락과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쾌락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12. 위 글에 나타난 쾌락주의의 입장이 아닌 것은?

- ㉠ 고통은 그 자체로서 목적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 ㉡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 ㉢ 쾌락이 아닌 다른 것도 도구적 의미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 금욕주의자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결국은 쾌락을 위한 것이다.
- ㉤ 두 행위 중 결과적으로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다.

13. ㉠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쾌락주의는 사디스트가 쾌락을 얻기 위해 가학적 행위를 하는 것도 옳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 ①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 ②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자신의 쾌락을 증진해 주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 ③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그런 것이다.
- ④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
- ⑤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보다 그로 인한 희생자의 고통이 더 클 경우에 가학적 행위는 그런 것이다.

14.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밀은 쾌락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을 포기하였다.
- ② 밀은 도덕적 가치 평가에서 쾌락 이외의 다른 기준을 도입하였다.
- ③ 밀은 쾌락의 원천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④ 밀은 모든 쾌락을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밀은 질적 차이가 있는 쾌락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설

1주차	2025 수능완성 158p
[1~3]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이런 언어 개념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 언어 개념은 보편성을 갖는데, 이는 실제 현실의 대상에 비해 언어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징은 현실의 대상은 늘 변화하는 데 반해 언어 개념은 고정적이라는 점이다. 즉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언어 개념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둔 공자와 순자의 사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의 본질과의 관계를 탐구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다.

공자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언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그 명분은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언어가 제대로 사용되어야 사회 질서가 잡히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을 정명 사상이라고 한다. 정명 사상은 순자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순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없으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해당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대상의 이름, 즉 언어 개념이 되는 것이라 보았다. 순자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예를 중시한 사상가인데, 예는 대상 간의 분별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순자는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순자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언어 개념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한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문명 비판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공자, 순자와 같은 유가가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계승하며 유지하려고 한 사상이라면, 노자, 장자와 같은 도가는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다.

인위를 배제한 자연 상태인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노자는 언어 개념을 인위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노자는 모든 것이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현실 세계를 유명(有名)의

세계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런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가짜 이름이라고 여겼다. 이는 언어 개념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상의 본질은 언어 개념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이며, 노자는 이것을 무명(無名) 혹은 무(無)로 표현했다. 노자는 유명한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통해서 무명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무명의 세계가 유명한 세계보다 앞서고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런 노자의 입장은 장자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장자에 의하면 언어 개념은 상대적이며 유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를 할 수 있다.
- ② 공자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 ③ 도가는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다.
- ④ 공자는 사람들이 분명한 언어로 표현된 자신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⑤ 노자는 문명 비판적인 언어 개념을 사용하여 무명의 세계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02. ㉠ 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사람은 얼굴과 특성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모두를 '사람'이라고 칭한다.
- ② '사자'라는 이름에 사용된 문자의 형태는 실제 사자의 외적인 형태와 관련이 없다.
- ③ 실제 하늘이라는 대상은 하나이지만, 언어의 종류에 따라 '하늘', 'sky'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 ④ 하늘의 별을 '별'이라고 이름 지어 사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을 임의로 '밭'이나 '불'로 부를 수 없다.
- ⑤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다'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의미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변화했다.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에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에서 공자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도가는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그 명분은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에서 노자는 언어 개념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가 대상의 본질이며, 이것을 무명(無名) 혹은 무(無)로 표현했다고 하였다. 노자는 유명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통해서 무명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을 뿐, 문명 비판적인 언어개념을 사용하여 무명의 세계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02. ㉠ 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얼굴과 특성이 다른 여러 사람을 모두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은, 실제 현실의 여러 대상을 우리가 하나의 언어 개념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현실의 대상에 비해 언어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② '사자'라는 이름에 사용된 문자의 형태가 실제 사자의 외적인 형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언어 개념에 사용된 표음 문자의 형태와 언어 개념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의 외적 형태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③ 하늘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언어의 종류에 따라 '하늘', 'sky'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실제 현실의 대상과 언어 개념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④ 하늘의 별을 '별'이라고 이름 지어 사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면 개인이 별을 임의로 '밭'이나 '불'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약속이어서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⑤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다'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의미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변한 것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새로 생기며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03. 윗글의 순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말과 소는 사실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짐,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짐 등 같은 점이 많다. 이처럼 모든 대상은 같은 점에 주목하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며,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

- ① 언어 개념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있으므로, 말은 소가 될 수 없다.
- ② 대상의 같은 점에 주목하는 것은 언어 개념의 사용을 통해 귀천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말과 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언어 개념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 ④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약속에 의해 정해진 언어 개념을 어지럽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⑤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 간의 분별을 없애는 것으로, 예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03. 윗글의 순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말과 소는 사실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짐,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짐 등 같은 점이 많다. 이처럼 모든 대상은 같은 점에 주목하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며,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

- ① 순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이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② <보기>에서 대상의 같은 점에 주목하는 것은, 순자가 말하는 언어 개념을 사용하는 목적인 대상을 구별하여 귀천을 밝히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 ③ 말과 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대상을 언어 개념을 통해 구별하는 것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다.
- ④ 순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없으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해당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대상의 이름, 즉 언어 개념이 되는 것이라 보았다. 또한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대상 간의 분별을 통해 순자가 말하는 예가 이루어지며, 예는 사회 질서를 위한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여러 대상이 모두 동등하므로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보기>에 대해 순자는 사회의 약속에 의해 정해진 언어 개념을 어지럽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 ⑤ 순자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예를 중시한 사상가로서, 예는 대상 간의 분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1주차	출처: 2025 수능특강 97p
[4~8]	연계: 2025인예11

미국의 생물학자 월슨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을 목표로 사회 생물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 생물학을 모든 사회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사회를 유전학과 진화론에 기초하여 규명하지 않는다면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인간의 윤리 문제도 생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와 윤리 등과 관련된 인간의 의식도 뇌의 시상 하부와 대뇌변연계에 있는 정서 중추에 의해 형성되고 제어되며, 유전자의 특성이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생명체가 지니는 특성은 결국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월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이 ㉠ 분축하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데, ㉡ 이러한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제시되기도 한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철학에서 이념적 기초로 제시한 개념인 '현실적 존재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실체이다. 현실적 존재자는 다양한데, 신도, 허공 속에 ㉢ 부유하는 먼지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모두 현실적 존재자이다. 이들은 존재적 중요성이나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는 같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현실적 존재자란 과거를 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 창출하는 과정 속의 실체이다. 그런 점에서 신도 먼지도 세포도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면서, 현실적 존재자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각각의 현실적 존재자들이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인 '공재(togetherness)'와 통일성을 이루는 과정인 '합생(concrescence)'을 거쳐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되며, 이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는 다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생성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때의 일련의 과정은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를 따르는데,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는 ㉤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

자에게는 주어진 조건, 즉 여건이 되고 또 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나아가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적 존재자는 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고유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자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펼쳐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실적 존재자의 특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생물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주체적으로는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다시 말해, 현실적 존재자는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에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객체적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 존재자 내부에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생물학이 ㉥ 접하는 지점이 된다. 생명체는 유전자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 즉 개체 유전을 통해 객체적 불멸성을 실현한다. 앞선 존재자와 후속하는 존재자로 이어지는 과정은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재와 합생을 거치며 생명체의 존재 목적이 달성된다.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세대를 마감한 후에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목적을 생명 중추라고 칭하였다. 현실적 존재자로서 생명체는 개체 유전을 통해 생명 중추를 달성하고 미래의 존재자에게 결정적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사회 생물학의 유전자 결정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평가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0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윌슨은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하려면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② 윌슨은 하등 생물과 고등 생물에 모두 적용되는 생물학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화이트헤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들도 현실적 존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④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중요 기관인 생명 중추를 통해 개체 유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⑤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후속하는 생명체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05.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명체는 여러 현실적 존재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 ② 생명체는 생명을 본질로 하지만 결국 소멸하는 일시적 존재이다.
- ③ 생명체의 개체 유전은 생명체의 독립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④ **생명체의 현재 속에는 미래의 생명체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
- ⑤ 생명체의 특징은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무작위적 결합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0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1문단에서 윌슨은 인간의 윤리 문제도 생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와 윤리 등과 관련된 인간의 의식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윌슨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을 목표로 사회 생물학을 주창하였다고 하였다.
- ③ 2문단에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모두 현실적 존재자라고 하였으므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현실적 존재자에 해당한다.
- ④ **4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을 생명 중추라고 칭하며 현실적 존재자로서 생명체는 개체 유전을 통해 생명 중추를 달성한다고 하였다. 화이트헤드가 생명체의 중요기관을 생명 중추라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 중추를 통해 개체 유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체 유전을 통해 생명 중추를 달성하는 것이다.**
- ⑤ 4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세대를 마감한 후에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05.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신도 먼지도 세포도 모두 현실적 존재자인데, 이들은 존재적 중요성이나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 같다고 하였다. 생명체가 여러 현실적 존재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지는 않았다.
- ② 4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주체적으로는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실적 존재자 내부에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므로 생명체를 결국 소멸하는 일시적 존재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
- ③ 2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가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으므로 개체 유전이 생명체의 독립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없다.
- ④ **4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사라진다고 할 지라도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에게 여권이 되기 때문에 객체적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실적 존재자의 내부에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체 유전이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개체 유전은 미래의 존재자에게 결정적 조건을 부과한다.**
- ⑤ 3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들은 존재의 목적을 위해 이미 정해진 질서를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무작위적 결합을 통해 생명체가 형성된 것이 아니다

06. 윗글의 '화이트헤드'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
 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라는 현실적 존재자와 B라는 현실적 존재자가 일
 련의 과정을 거쳐 W_{AB} 라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형성하였다.

- ① W_{AB} 를 A와 B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A와 B는 W_{AB} 의 여건이자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
 다.
- ③ W_{AB} 를 이루기 위해 A와 B는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
 을 거쳤다.
- ④ A와 B는 W_{AB} 내에 있는 현실적 존재자로서
 W_{AB} 의 특성을 모두 포괄한다.
- ⑤ W_{AB} 는 A와 B가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합생하는
 과정을 거쳐 실재하게 된 것이다.

06. 윗글의 '화이트헤드'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
 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라는 현실적 존재자와 B라는 현실적 존재자가 일
 련의 과정을 거쳐 W_{AB} 라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형성하였다.

- ① 3문단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자는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
 문에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고유성을 갖는다. 따
 라서 W_{AB} 를 A와 B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는 후속하는 새로
 운 현실적 존재자에게는 여건이 되고 또 그 구성 요소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A와 B는 W_{AB} 의 여건이자 구
 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각각의 현실적 존재자들이 서로를 파
 악하는 과정을 공재를 거쳐야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된다. 따라서 W_{AB} 를 이루기 위해 A와 B는 서로
 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 ④ A와 B가 공재와 합생을 거쳐 새로운 현실적 존재
 자가 생성된다. W_{AB} 가 A와 B보다 이후에 생성된
 것이므로 A와 B가 W_{AB} 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지
 는 않는다,
- ⑤ 2문단에서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세계를 구성
 하는 궁극적 실재라고 하였다. 3문단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자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공재와
 합생을 통해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된다.

07. <보기>의 (가), (나)를 읽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데카르트는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실체의 존재는 실체가 놓여 있는 여건이나 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명체는 생존에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현상에서 찾는 것으로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이다. 환원주의에서는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체로 설명하는데, 이는 부분의 속성을 전체도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환원주의는 생명체가 유전자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탄생하고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가): 데카르트가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은, 현실 세계를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라고 설명하는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 생명체는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화이트헤드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존재자의 주체적 소멸을 줄이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 환원주의에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현실적 존재자를 '펼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설명하며 현실적 존재자를 동태적 존재로서 인식한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으로 보고 생명체를 이루는 부분의 속성을 생명체가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것은,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를 여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화이트헤드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 : 환원주의가 생명체의 여러 부분은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도 결국에는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화이트헤드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07. <보기>의 (가), (나)를 읽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데카르트는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실체의 존재는 실체가 놓여 있는 여건이나 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명체는 생존에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현상에서 찾는 것으로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이다. 환원주의에서는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체로 설명하는데, 이는 부분의 속성을 전체도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환원주의는 생명체가 유전자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탄생하고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데카르트의 관점은 실체가 놓여 있는 여건이나 환경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실체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현실 세계를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라고 설명하는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
- ② 데카르트의 관점에 대해 생명체는 생존에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반문할 수 있다. 이러한 반문은 여건이나 환경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이러한 반문이 현실적 존재자의 주체적 소멸을 줄이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아니며, 화이트헤드도 현실적 존재자의 주체적 소멸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 ③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현상에서 찾는 것으로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분을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펼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하면서 현실적 존재자의 동태적 속성, 즉 현실적 존재자가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④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으로 보고 생명체를 이루는 부분의 속성을 생명체가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것은 부분의 합이 전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를 여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창출하는 과정 속의 실체라고 말한다. 과거를 여건으로 하여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실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분의 합이 전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환원주의적 관점과 다르다.
- ⑤ 환원주의가 생명체의 여러 부분은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 존재자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의존 관계를 강조하는 화이트헤드의 주장과 유사하다.

0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모자란다는
- ② ㉡ : 떠다니는
- ③ ㉢ : **찾아내는**
- ④ ㉣ : 뒤잇는
- ⑤ ㉤ : 맞닿는

0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부족하다'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의 뜻으로, '모자라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② ㉡ : '부유하다'는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의 뜻으로, '떠다니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③ ㉢ : '창출하다'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내다.'라는 뜻으로, '찾기 어려운 사람이나 사물을 찾아서 드러내다.'의 의미인 '찾아내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④ ㉣ : '후속하다'는 '뒤를 이어 계속하다.'의 뜻으로, '뒤잇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⑤ ㉤ : '접하다'는 '이어서 닿다.'의 뜻으로, '맞닿다'와 바꿔 쓸 수 있다.

1주차	출처: 2008 수능 연계: 2025개념08
[9~11]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생리학 분야의 절대적 권위는 2세기 경 그리스 의학을 집대성한 갈레노스에게 있었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정맥피는 간에서 생성되어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영양분을 전달하면서 소모된다. 정맥피 중 일부는 심실벽인 격막의 구멍을 통과하여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이동한 후, 거기에서 공기의 통로인 폐정맥을 통해 폐에서 유입된 공기와 만나 동맥피가 된다. 그 다음에 동맥피는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생기를 전해 주면서 소모된다. 이 이론은 피의 전달 경로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갈레노스의 포괄적인 생리학 체계의 일부로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다. 중세를 거치면서 인체 해부가 가능했지만, 그러한 오류들은 고대의 권위를 추종하는 학문 풍토 때문에 시정되지 않았다.

16세기에 이르러 베살리우스는 해부를 통해 격막에 구멍이 없으며, 폐정맥이 공기가 아닌 피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후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통과한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폐순환이 발견되자 갈레노스의 피의 소모 이론은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당시의 의학자들은 갈레노스의 이론에 얽매어 있었으므로 격막 구멍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문제, 즉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피가 옮겨 갈 수 없는 문제를 폐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판도를 바꾼 사람은 하비였다. 그는 생리학에 근대적인 정량적 방법을 도입했다. 그는 심장의 용적을 측정하여 심장이 밀어내는 피의 양을 추정했다. 그 결과,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피의 양은 섭취되는 음식물의 양보다 훨씬 많았다. 먹은 음식물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하비는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하비는 끈으로 자신의 팔을 묶어 동맥과 정맥을 함께 압박하였다. 피의 흐름이 멈추자 피가 통하지 않는 손은 차가워졌다. 동맥을 차단했던 끈을 약간 늦추어 동맥피만 흐르게 해 주자 손은 이내 생기를 회복했고, 잠시 후 여전히 끈에 압박되어 있던 정맥의 말단 쪽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끈을 마저 풀어 주자 부풀어 올랐던 정맥은 이내 가라앉았다. 이로써 동맥으로 나갔던 피가 손을 돌아 정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 실험을 근거로 하비는 1628년에 '좌심실→대동맥→각 기관→대정맥→우심방→우심실→폐동맥→폐→폐정맥→좌심방→좌심실'로 이어지는 피의 순환 경로를 제시했다.

반대자들은 해부를 통해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얼마 후, 말피기가 새로 발명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발견하면서 피의 순환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폐와 그 밖의 기관들을 피가 따로 순환해야 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체 기능을 설명하는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이 시작되었다.

09. 위 글로 보아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
- ② 과학적 발견들과의 부합
- ③ 정량적 사고방식의 채택
- ④ 새로운 관찰 도구의 도입
- ⑤ 실험적 방법의 적극적 활용

10. <보기>는 '하비'가 제시한 피의 순환 경로의 일부이다. '하비'가 끈 실험에서 차단했던 위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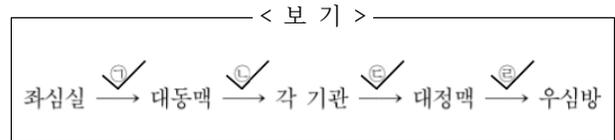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09. 위 글로 보아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 1문단에서 '절대적 권위'라고 언급했고, 이를 하비가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이므로, 새로운 생리학은 결과로,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과학적 발견들과의 부합: 폐순환, 음식물의 양과의 비교, 혈류 순환 실험 등과 부합하였다.
- ③ 정량적 사고방식의 채택: 심장이 밀어내는 피의 양을 음식물 양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 ④ 새로운 관찰 도구의 도입: 말피기가 '현미경'이라는 새로운 관찰 도구를 활용하여 모세혈관을 관찰하면서 기여하였다.
- ⑤ 실험적 방법의 적극적 활용: 팔을 묶는 실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해부 역시 실험적 방법으로 볼 수 있다.

10. <보기>는 '하비'가 제시한 피의 순환 경로의 일부이다. '하비'가 끈 실험에서 차단했던 위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1점]



- ③ ㉡, ㉣: 3문단을 보면, 동맥과 정맥을 동시에 압박하였다고 했고, 손의 온도만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각 기관이 아닌 하나의 기관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통해 대동맥과 대정맥을 막은 것이 아니라, 기관(손)과 대동맥, 대정맥 사이에서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보기>의 관점에 따라 위 글의 사례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성공적인 과학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 후속하는 과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발견한다. 이러한 '정상 과학' 활동에서 때때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인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패러다임을 당장에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칙 사례가 누적되면서 위기가 도래한다. 이때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을 벌인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새로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데, 이것이 '과학 혁명'이다.

- ① 갈레노스의 이론은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므로 '패러다임'이었겠군.
- ② 갈레노스에 대한 강력한 추종이 있었던 중세의 생리학은 '정상 과학'이었겠군.
- ③ 폐정맥에서 피가 발견된 것은 갈레노스의 이론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변칙 사례'에 속하겠군.
- ④ 폐순환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했겠군.
- ⑤ 하비의 순환 이론이 갈레노스의 이론을 대신하여 수용된 것이 '과학 혁명'이겠군.

11. <보기>의 관점에 따라 위 글의 사례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성공적인 과학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 후속하는 과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발견한다. 이러한 '정상 과학' 활동에서 때때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인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패러다임을 당장에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칙 사례가 누적되면서 위기가 도래한다. 이때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을 벌인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새로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데, 이것이 '과학 혁명'이다.

- ① 갈레노스의 이론은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므로 '패러다임'이었겠군: 2세기 이전 과거의 입장에서 본다면 갈레노스의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 절대적 권위가 되었다. 이후 변칙사례로 인해 과학혁명이 발생한 것이다.
- ② 갈레노스에 대한 강력한 추종이 있었던 중세의 생리학은 '정상 과학'이었겠군: 당시에는 갈레노스의 학문이 '정상 과학'으로, 절대적 권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폐정맥에서 피가 발견된 것은 갈레노스의 이론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변칙 사례'에 속하겠군: 과학혁명으로 폐기되기 전, 쌓였던 변칙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변칙사례로 인해 새로운 순환 모델이 패러다임이 된 것이다.
- ④ 폐순환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했겠군: 당시 의학자들이 갈레노스의 이론에 얽매어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무효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폐순환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피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를 통해 확정적으로 발견한 것을 알 수 있다.
- ⑤ 하비의 순환 이론이 갈레노스의 이론을 대신하여 수용된 것이 '과학 혁명'이겠군: 갈레노스의 이론을 폐기하게 된 계기로, 과학혁명으로 볼 수 있다.

1주차	출처: 2014LEET 8~10
[12~14]	연계: 2025유형02나

2014 LEET	지문분석
<p>쾌락주의는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int: 쾌락주의 주장으로는 쾌락이 “그 자체로서”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가 있다. ✓ Point: 에피쿠로스의 이기적 쾌락주의 -> 벤담과 밀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 Flow: 에피쿠로스의 이기적 쾌락주의와 벤담/밀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가 설명될 지문으로 발전되는 과정이거나 비교하는 관계인지, 그리고 무조건 이 둘을 체계화하며 대조해야 한다. ✓ Tip: 1문단은 항상 중요하며, 정의가 나와있는 경우, 어휘와 조사는 무조건 잘 확인해야 한다. ‘쾌락주의’에서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로지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부분도 중요하다. ✓ Tip: 긴 문장의 이해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 => 쾌락주의는 (에피쿠로스 - 개인의 쾌락 - 이기적 쾌락주의)와 (근대 - 벤담/밀 - 사회전체의 쾌락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나눌 수 있으며, ‘둘다 쾌락주의’이다. 	
<p>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int: 쾌락주의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오해가 있다. ✓ Point: 장기적인 쾌락이 더 클 수도 있다. ✓ Flow: 1문단 마지막에 두 쾌락주의를 대조하여 예상할 수 있는데, 다른 내용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기존 주제인 두 쾌락주의가 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젠간 나올 것이다. ✓ Tip: 쾌락주의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으로 예시가 많다. 빠른 독해를 위해서는 첫 문장 “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만 봐도 이후의 내용을 상식선으로 판단 가능하다. 훑으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p>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int: 쾌락주의에는 ‘쾌락만 가치가 있다’라는 오해가 있다. ✓ Point: ‘도구적인 의미’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있어도, 목적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쾌락뿐이다. ✓ Flow: 1문단 마지막의 떡밥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2, 3문단을 묶어서 쾌락주의의 의견을 디테일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 Tip: 2문단과 비슷하게, 도입부 부분만 읽고 상식선에서 판단가능하다면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 Tip: 새로운 ‘비교’하는 개념이 나왔다. ‘도구’와 ‘목적’의 차이가 있는데, ‘둘 다 가치는 있다’, ‘목적에는 쾌락뿐’이라는 포인트가 있다. 	

쾌락주의는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 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 Point: 고통은 목적이 될 수 없다.
- ✓ Point: 통상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금욕주의자' 역시 장기적인 '쾌락'인 성취와 만족을 위한 것이다.
- ✓ Flow: 3문단에 추가적인 설명이다. 고통과 쾌락을 비교하며, 고통이 목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사례를 미리 반박한 것이다. 1문단의 딱 밥을 기억해야 한다.
- ✓ Flow: 2문단에서 언급되었던 '도구'와 '목적'의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쾌락만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 ✓ Tip: 계속 쾌락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문단의 두 쾌락주의의 비교와 같은 큰 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 Tip: 긴 문장의 이해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 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 (세속적 금욕주의자: 사회적 성취(부/명예)로 당장의 쾌락을 포기)
- ==> (종교적 금욕주의자: 내세의 성취로 당장의 쾌락을 포기)
- ==>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하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돼지의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돼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 ✓ Point: 쾌락주의의 다양한 비판, 1) 쾌락의 정의, 2) 쾌락의 계산
- ✓ Point: 쾌락의 정의에서의 비판으로 '음식의 쾌락과 사회의 쾌락은 같은 것인가?'라는 비판이 있으나, 벤담은 이에 '질적으로 같고, 양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며 '저급한 돼지의 쾌락 vs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의 비판에 약하다.
- ✓ Point: '쾌락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한 밀은 '질적으로 다른 쾌락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는 비판이 있다.
- ✓ Flow: 마지막 문단으로, 쾌락주의에 대한 '오해'가 아닌 '비판'을 설명하고 있으며, 2, 3, 4문단의 오해가 아닌, 비판을 설명하고 있다. '쾌락의 정의', '쾌락의 계산'의 두 가지 비판이 있고, 학자별로 이 두 비판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 Flow: 1문단의 두 쾌락주의에 대한 딱밥이 반만 풀렸다. 에피쿠로스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문제에서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좋다.
- ✓ Flow: 1문단의 벤담/밀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가 무엇인지 기억하면 5문단을 매우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에 대한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 쾌락의 총합'을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질문만 던져도 5문단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두 학자의 대답도 다르다. 아래 Point에서 부연설명 참고
- ✓ Tip: 긴 문장의 이해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돼지의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돼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 ==> "식욕의 충족 vs 사회적 명예의 획득"
- ==> 벤담: 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합해서 비교할 수 있다.
- ==> 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동물(돼지)와 인간의 쾌락도 동일한다? 이에 벤담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 ✓ Point: 불친절한 해설의 이해: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린 이유"
- ==> 저급쾌락과 고급쾌락이 나뉜다. 즉, (쾌락 + 고급/저급)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 ==> 쾌락주의의 정의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가 있다, 쾌락으로만 평가해야 한다)에 벗어난 척도 "고급/저급"이 들어가서 모순이다.

2014 LEET	#8
<p>쾌락주의는 ②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⑤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②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p> <p>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②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p> <p>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③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p> <p>쾌락주의는 ①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④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①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④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 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p> <p>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한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돼지의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돼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p>	
<p>12. 위 글에 나타난 쾌락주의의 입장이 아닌 것은?</p> <p>① 고통은 그 자체로서 목적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②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③ 쾌락이 아닌 다른 것도 도구적 의미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④ 금욕주의자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결국은 쾌락을 위한 것이다. ⑤ 두 행위 중 결과적으로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다.</p>	
<p>[실전]</p> <p>①③④ 쾌락만이 목적 혹은 내재적 가치가 될 수 있다. ⑤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다. ✓ 지문의 핵심 개념으로 판단 후, 일부만 지문을 확인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② 2문단으로 헛갈릴 수 있지만, 1, 3, 4, 5를 판단 한 후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정석]</p> <p>① 고통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② '모든' 쾌락에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 ③ 고통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④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금욕주의자도 더 궁극의 쾌락을 위한 것이다. ⑤ 쾌락주의는 더 큰 쾌락을 지향한다.</p>

2014 LEET	#9
<p>쾌락주의는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①②③④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p> <p>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p> <p>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p> <p>쾌락주의는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든 내세적 성취이든 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p> <p>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한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돼지의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돼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p>	
<p>13. ㉠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 보 기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 <p>쾌락주의는 사디스트가 쾌락을 얻기 위해 가학적 행위를 하는 것도 옳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p> </div> <p>①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른 것이다. ②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자신의 쾌락을 증진해 주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③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그른 것이다. ④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 ⑤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보다 그로 인한 희생자의 고통이 더 클 경우에 가학적 행위는 그른 것이다.</p>	
<p>[실전]</p> <p>①③④ 쾌락주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② 이기적 쾌락주의와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것이다. ⑤ 사회적 통념상 고통이 쾌락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한다면 쾌락의 총합이 음수가 될 수 있다.</p>	<p>[정석]</p> <p>① 쾌락주의의 동기는 쾌락으로 오히려 '이기적 쾌락주의'에 따르면 옳은 것이다. ②도 동일하게 '이기적 쾌락주의'라면 옳지만,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라서 틀린 선지다. ③ 피해의 발생 여부로 '인해' 그른 것이다. ④ 쾌락을 얻으므로, 그 자체로서 가치는 지니고 있다. ⑤ 사회 전체의 쾌락을 계산해서 음수가 나온다.</p>

2014 LEET	#10
<p>쾌락주의는 ②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 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①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p> <p>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 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p> <p>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p> <p>쾌락주의는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 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인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 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 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p> <p>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한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돼지의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돼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④⑤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③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②③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p> <p>14.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밀은 쾌락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을 포기하였다. ② 밀은 도덕적 가치 평가에서 쾌락 이외의 다른 기준을 도입하였다. ③ 밀은 쾌락의 원천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④ 밀은 모든 쾌락을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밀은 질적 차이가 있는 쾌락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p>	
<p>[실전]</p> <p>①은 도구적 가치와 무관해서 시작부터 지워야 한다. ③은 '쾌락의 원천'에 대해 다룬적이 없으므로 제외할 수 있다. ④는 '계산의 문제'라고 하였으므로 제외할 수 있다. ✓ 이외에 ②⑤는 모두 옳은 선지처럼 보인다. '쾌락주의'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한다. ✓ 자세히 살펴보면 '질적 차이'와 '다른 기준'이 유사한 의미이다. 즉, (②의 내용) + (계산의 여부) = (⑤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쾌락주의의 입장에 계산의 여부는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지 않으며, 더불어, ②가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p>	<p>[정석]</p> <p>① 쾌락과 도구적 가치는 언급된 바 없다. ② 밀은 도덕적 가치 평가에서 쾌락 이외의 '저급/고급'과 같은 기준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생겨났다. ③ 쾌락의 원천은 언급된 바가 없다 ④ 이질적인 쾌락은 비교할 수 없다는 '계산의 문제' 발생 ⑤ 밀은 질적 차이가 있는 쾌락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로 인해 쾌락주의적 입장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질적 차이'를 뒤서 문제가 생긴 것.</p>